

제 3회 『자유 101』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5명
2018년 11월 25일 경남 창원시 할리스커피에서

‘모든 사람의 DNA를 기록 보관하면 우리는 범죄자들을 찾아내어 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적 영역을 원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 논리의 전제이면서 논리적 귀결은 인간이 DNA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DNA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가능하지도 않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해야만 한다. 모든 것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생각해야한다.

‘부족한 자원들은 최고 입찰자에 가는 대신에 필요를 기초로 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공급이 딸리는 재화에 대해 가격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배분이 이루어질 때, 부족을 덜기 위해 아무 일도 행해지지 않는다. 배분이 가격에 의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부족에 정말 작용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논리이다. 이 논리의 역인 ‘필요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 받는다.’가 시장논리, 자유주의 논리에 가까우며 훨씬 합리적이다. 단, 가족공동체에서는 합당한 내용이다. 그 부분이 보수주의와의 접점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미래 욕망과 필요의 충족을 계획하는 것이 그렇게 할 전적인 우연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욕망의 충족을 개인적으로 계획하는데,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계획경제를 비판하는 부분이다. 개인의 미래는 계획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으나 사회는 그렇게 계획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쪼갤 수 없는 원자이며 의지이다. 하지만 사회는 의지가 없으며 주체가 아니다. 사회는 그저 현상일 뿐이다.

‘정부는 공공 지출 증가를 통해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뽀프에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

-사실상 정부가 이렇게 할 때, 정부는 민간 부문 일자리를 유지했었을 자원들을 빼앗음으로써 민간 부문 일자리를 파괴하게 된다.

소득주도경제에 대한 내용이다.

※사담

◦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 -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의 저서 ‘매니지먼트’는 공직이라도 필요한 내용과 능력이다. 가령 감사 나가는 공무원의 경우 수많은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단지 데이터의 비교 즉, 데이터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 조턴 피터슨의 최근 베스트 셀러 ‘12가지 인생의 법칙’ 추천.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심리학으로 풀어낸 책이며 유튜브 강의로도 유명하다.

◦ 인생의 목적은 행복보다는 의미에 있지 않을까